



핑크 골드로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대담하고 참신한 재해석을 통해
전형적인 스포츠 컴플리케이션의 우아함을 더욱 강조한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솔리드 핑크 골드 다이얼, 무브먼트 브릿지, 인덱스 및 버클이 돋보이는 핑크 골드 케이스(18K, 750/1000)*
- *리베르소 케이스의 기하학적인 아르데코 직선형 구조를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다이얼*

예거 르쿨트르는 2023 년 스틸 또는 18k(750/1000) 핑크 골드 케이스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한 데 이어 2024 년에는 스포츠 컴플리케이션을 '전체 핑크 골드' 버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8K (750/1000) 핑크 골드 케이스는 솔리드 18K(750/1000) 핑크 골드 다이얼, 무브먼트 브릿지, 아플리케 인덱스 및 핀 버클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제품은 2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미적 아름다움과 끊임없는 혁신적인 기술력의 스포츠워치 아이콘

1931 년 폴로 경기 시 착용하도록 설계된 보호용 회전 케이스와 함께 탄생한 리베르소는 우아하고 스포티한 아르데코 디자인에 매료된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진화를 거친 케이스는 기존의 스테이브라이트 스틸에서 진귀한 메탈 소재로 바뀌었고, 뒷면 메탈 케이스의 빈 공간은 인그레이빙, 래커, 에나멜 또는 젬스톤으로 장식되거나



두 번째 다이얼로 활용되었습니다. 정체성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 온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목시계 중 하나이며, 20 세기의 디자인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포츠 컴플리케이션을 특별하게 표현하며 리베르소의 폴로 기원에 경의를 표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통합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에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도입한 1996 년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전 무브먼트는 칼리버 860 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앞면과 뒷면 다이얼에 시간을 표시하고, 뒷면에는 아름답게 세공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솔리드 핑크 골드로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얼과 오픈워크 뒷면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미적 창의성과 뛰어난 장인 정신을 통해 기계적 정밀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랑 메종의 핵심적인 위치메이킹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메종의 탁월함을 향한 노력은 핑크 골드 케이스의 새로운 타임피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면 다이얼은 새로운 스타일의 장식 마감을 도입했습니다. 핑크 골드 표면에는 다이얼 폭에 걸쳐 얇은 가로줄이 레이저로 인그레이빙되었습니다. 간결하고 우아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은 리베르소 케이스의 기하학적인 직선형 구조를 강조해주며 다이얼 위아래에 자리한 3 개의 수평 가드룬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배경에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디자인의 특징인 아플리케 사다리꼴 인덱스와 도피네 핸즈, *레일웨이* 미닛 트랙이 자리합니다. 새로운 다이얼은 미닛 트랙이 블랙으로 강조되어 핑크 골드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뒷면의 오픈워크 다이얼은 정교하게 제작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의 정교함을 드러냅니다. 18K(750/100) 핑크 골드 브릿지는 수공으로 베벨링 처리된 테두리와 세로 방향 꼬뜨 드 제네브 장식이 특징이며, 모두 르 상티에에 있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미닛 트랙은 블랙으로 강조되어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비를 이루며, 블루 크로노그래프 핸즈와 블루 스크류가 색감을 더해줍니다. 폴리싱 처리된 18K(750/100) 핑크 골드 인덱스는 눈에 띄지 않게 미닛 트랙에 장착되어 무브먼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칼리버 860: 크로노그래프의 새로운 표현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1996 년 획기적인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 레트로그레이드를 재해석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60 으로 구동됩니다. 그랑 메종의 독창성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이 타임피스 는 10 년 동안 특별히 개발된 6 피스의 리베르소 중 하나였으며, 각각의 타임피스는 클래식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걸작이었습니다. 칼리버 829 무브먼트는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추어 제작된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이자 포스트 쿼츠 시대에 개발된 첫 번째 핸드 와인딩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모든 예거 르쿨트르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처 내에서 설계 및 생산, 조립, 장식되었습니다.

칼리버 860 은 시작/정지 및 리셋 푸셔, 30 분 레트로그레이드 카운터, 센트럴 세컨즈, 두 번째 시간 인디케이터를 장착한 완전히 통합된 핸드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형태도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매뉴팩처의 철학에 따라 칼리버는 직사각형으로 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얼 상단에 커다란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다이얼 하단에 반원형 30 분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를 장착하여 아름답게 균형 잡힌 독창적인 다이얼 레이아웃을 완성했습니다.

시간당 28,800 회 진동하는 칼리버 860 은 무브먼트의 전체 두께를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직 클러치 대신 수평 클러치가 장착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두 세트의 핸즈를 움직여 앞면 및 뒷면 다이얼 모두에서 시간과 분을 표시합니다. 실제로 시계의 양면 페이스에서 적절한 시계 방향으로 시간을 표시하려면 두 세트의 핸즈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칼리버 860 은 5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개의 시간 인디케이션과 결합된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의 높은 에너지 요구량도 수용합니다. 칼리버 860 은 구성품만 최소 300 개 이상인 정교한 기계 장치이지만 두께가 11.14mm 인 케이스 안에 배치해야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디자인 철학도 준수합니다.



타임피스에 스타일을 더하는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

각 시계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의 시그니처인 프레스토 퀵 릴리즈 시스템(Presto quick-release system)과 손쉽게 교체 가능한 버클이 장착된 두 가지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리베르소의 기원인 폴로의 전통을 이어가는 태닝 처리된 송아지 가죽 스트랩은 아르헨티나 최고급 부츠 제작사로 유명한 까사 파글리아노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틀리에에서 디자인하여 스포티한 세련미를 더했으며,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소재는 시계에 더욱 클래식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미적 아름다움, 정밀함 및 정확성을 추구하는 매뉴팩처의 원동력을 보여주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전통과 장인 정신, 혁신을 새롭게 담아낸 탁월한 제품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소재: 핑크 골드(18K – 750/1000)

크기: 49.4 x 29.9mm, 두께 11.14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60

파워 리저브: 52 시간

기능: 시와 분(앞면 및 뒷면), 크로노그래프 센트럴 세컨즈(뒷면), 30 분 레트로그레이드 카운터(뒷면)

앞면 다이얼: 핑크 골드, 인그레이빙

뒷면 다이얼: 오픈워크 핑크 골드 브릿지

스트랩 패키지: 파글리아노 컬렉션 송아지 가죽 스트랩 추가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

제품 번호: Q389256J

2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